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

신성장동력 지역특화 바이오산업육성 바이오 미래도시 비전 5대 추진 전략 제시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남원 스위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남원시의회,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유관기관, 전국 바이오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비전선포식은 축하공연, 남원시 바이오산업 추진계획 발표, 비전선포 및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신성장동력 지역특화 바이오산업육성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이라는 비전과 천연물·곤충 중심의 허브 남원 구축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이오소재 개발 △바이오소재 가공연구 △영호남 유일 바이오 인증평가 △바이오기업 육성 유치 활성화 △바이오기업 네트워크의 5대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다.

또한 남원시가 조성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인프라 사업들을 소개하며 대한민국 바이오 미래도시 남원을 알리고 향후 차세대 먹거리 사업인 바이오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남원 스위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남원시의회,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의회,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유관기관, 전국 바이오기업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 바이오산업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산업을 남원시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지를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 앞에서 알리는 자리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산·하·연·관 협력을 통한 R&D 연구기관강화 △첨단 인프라 구축 △혁신기업지원을 강화하는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화사회 대응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진출의 최적지인 남원에서 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관광객 ‘역대 최다’

임실군, 3월 1일 재개장 이후 유료 관광객 25만여명… 2022년 개통 이후 최다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재개장한 이후 6월 말까지 4개월간 옥정호 출렁다리를 건너 붕어섬 생태공원에 유료 입장한 방문객 수는 총 24만8,3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만7,564명을 넘는 수치이자, 2022년 10월 임시개통 이후 2023년 같은 기간 17만5,243명을 크게 뛰어넘는 개통 후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한 달간 무료 개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3월부터 유료 개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 방문객은 더욱 증가, 전년도 총방문객 수인 46만여 명도 올해는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추이 속에 지난 5월 25일에는 단 하루 동안 9,300여 명이 찾아 개통 이후 단일 방문객으로도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무료 개장 당시 입장객은 1만1,567명이었다. 올해는 그 이상의 방문객이 유료 입장하면서 운영매출액이 급증했다.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올해 상반기 역대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으며 전국적인 인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입장료 매출액은 7억8천2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억3천1백만원보다 182% 신장했다.

이 같은 인기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이 전복을 넘어서 전국적인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한 관광객들의 입소문과 아름다운 붕어섬 생태공원의 계절 꽃 경관과 어울려 찍은 사진들을 개인 SNS에 올리는 관광객들의 호응에 무려 상반기 동안 180만 뷰를 자랑하는 군청 뉴미디어팀의 적극적인 SNS 관광 홍보가 관광객 유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또한, 방송과 신문, 통신, 인터넷 등

미디어 노출을 극대화한 홍보담당관의 대언론 전략과 2025 임실방문의 해 공격적인 마케팅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심 민 군수는 “2025 임실방문의 해를 맞아 재개장 이후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붕어섬 생태공원과 옥정호 출렁다리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다”며 “사계절 내내 계절 꽃을 통한 화려한 경관 볼거리와 함께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호수인 옥정호에 자리한 붕어섬에서 힐링 관광을 실컷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설명회 개최

남원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 부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설명회는 남원국제드론제전을 앞두고 시 차원의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회의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해 주요 국과장 및 전 부서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해 국제행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책임 의식을 내걸었다.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개최되며, 드론과 로봇을 융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대를 아우르

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드론제전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연계해 DFL 드론레이싱을 중심으로 국내외 드론스포츠포 대회, 로봇 테마 전시·체험, 산업전시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으며, 문화예술과 지역특산물도 함께 어우러져 남원만의 색깔을 담은 복합축제로 거듭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

전국 최초로 노인과 장애인에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시행한 순창군이 기기 보급을 넘어, 이용자의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 활동까지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달 26일 전동보조기기 보급 지원 대상자 37명을 시작으로, 총 333명의 어르신에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기본 조작법은 물론, 교통안전 수칙, 인도 주행 시 유의사항, 사고 예방 요령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드론교실 본격 운영… 대상 대폭 확대

남원시는 시민들의 드론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드론과 가까워질 수 있는 ‘2025년 찾아가는 드론교실’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도 시범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한 남원시는, 올해 교육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관내 전문 교육업체 위탁 방식으로 전환해 운영에 나선다.

교육은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총 15개소, 3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남원시노인복지회관과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는 중·장년층 50명을 대상으로 드론 기초 이론 및 항공촬영 체험 교



육이 이뤄진다. 또한 9개 초등학교 266명의 학생들이 드론축구, 드론레이싱, 드론코딩 등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이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기본사회 실현 선도

전북 최초 기본사회탐 신설… 복지·주거·교육·돌봄 등 업무 총괄

순창군(군수 최영일(사진))이 하반기 정기인사를 통해 ‘기본사회팀’을 공식 신설하며, 기본사회 실현 선도지역으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동령은 후보 시절부터 “누구나 두려운 안전매트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강조하며 기본사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돌봄·교육·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것이 핵심으로, 단순한 복지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이다.

순창군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이미 기본사회 실현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왔다. 국정철학인 기본사회와 정책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1인당 월 10~20만 원 ‘아동랭복수당’ △학기당 200만 원 ‘대학생 생활지원금’ △매월 15만 원 저축 시 30만 원 지원하는 ‘청년종자통장’ △연간 200만 원 ‘농민 기본소득’ △연간 12만 원 ‘어르신 이미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복지·주거를 연계한

지역협력타운,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주거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취학 아동 무료 돌봄서비스, 기숙형 공립교육기관인 육천인재타운 운영 등 돌봄·교육 분야에서도 균형 잡힌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에는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 혁신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행복콜버스, 마울택시, 통학택시 등 교통약자 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순창군은 불과 몇 년 전 인구 감소 위기 지역에서 2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정책에 대한 군민 만족도 또한 높아, 중앙정부 차원의 실험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최적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신설될 기본사회팀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되던 복지·주거·교육·돌봄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기본사회 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사회팀 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닌, 앞으로 군이 나아갈 방향이자 새로운 비전”이라며, “순창군이 기본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남원시의회는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순종열 의원은 △순풍과 같은 다작물 기반 농업으로의 전환 지원 △중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경작 효율을 극대화할 기반 정비 △각종 농업 분야 사업의 일몰에 대한 세심한 검토 △인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그로 인한 작물 피해에 대한 행정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동환 의원은 △지난달 2일 폭우로 완전히 물에 잠긴 요천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불분명한 사업 타당성으로 우려를 낳고 있는 △국제드론제전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함파우 아트밸리 △곤충산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

강인식 의원은 △임신 초기부터의

심리지원 강화 △교통 취약 산모에 대한 이동지원 강화 △난임 검사비와 약제비 지원 확대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도입 제안 △난임 휴가제도 확대와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 △사술시기와 지원시기의 일치로 현실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숙자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존중과 합당한 예우, 지속가능한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는 공공정책의 필수 과제라고 말하며 이를 위한 정책 개선으로 △활동 실비 지원과 기본 물품 제공 필요 △마일리지 제도를 지역 밀착형으로 개편 △공영주차장 및 사유시설 이용 혜택 확대 필요 △예방접종 및 건강권 보장 정책 도입 △자원봉사 포인트제와 지역공동체 순환기금 연계를 제안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남원시는 6월부터 오는 10월까지 관내 민간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친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역량 강화 교육은 민선 8기 공약 중 하나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실천 과제로 추진되며, 민간 사회복지사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복지 체계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교육은 남원시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본관 3층)에서 회당 약 80명 규모로 진행되며, 남원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실무와 현장 중심의 주제로 구성된다.

교육 영역은 △사회복지 가치에 대한 통찰 △주인 참여형 소통 기법 △비영리 조직의 지도력과 사명 △사회사업 글쓰기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 △인문학 기반의 성찰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강사 섭외 및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로드킬 사체 수거·처리반 운영

남원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동물 찾길 사고 사체 수거·처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환경과나 읍면동 사무소, 당직실에 로드킬 동물 사체 신고가 접수되면 주말과 야간 관계없이 환경관리원이나, 읍면동 직원이 현장에 출동해 사체를 직접 수거, 처리해 왔으나, 이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 우려와 훼손된 동물 사체를 처리 후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남원시는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남원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화단과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동물 찾길 사고 사체를 처리하기로 했다.

남원시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화단은 주말과 공휴일에 유해야생동물 상시 포획팀으로 동물 찾길 사고 사체 처리 겸, 365일 24시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조림지 가꾸기 사업 본격 착수

임실군이 건강하고 우람한 숲 조성을 위해 올해 총 669헥타르(ha)에 걸쳐 조림지 가꾸기(풀베기)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총사업비 11억4천9백만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조림목의 안정적인 생장을 돕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어린 조림목이 햇빛과 수분,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변의 잡관목, 잡초, 덩굴류 등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조림목의 활착률을 높이고 생육 환경을 최적화함으로써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 재해 예방, 생물다양성 유지 등 산림의 다기능적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장기적인 목재 자원 확보, 미세먼지 저감, 산림휴양자원 조성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심 민 군수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은 미래의 건강한 숲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며 “철저한 관리와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여 임실군의 산림 자원을 더욱 풍요롭게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식품안전관리 우수 급식소 ‘순창어린이집’ 선정

순창군이 ‘식품안전관리 우수 집단급식소 선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올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순창어린이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 수준을 한층 끌어올리고, 위생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해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관내 학교, 산업체 등 총 32개소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접수된 업소를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 점검과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시설 환경 △개인위생 △조리 과정의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30여 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으며, 실효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준이 적용됐다.

/순창=이양원 기자